



<綠線, 자연을 두드리다>
웹진을 만나보세요



<綠線, 자연을 두드리다>는 친환경 인쇄공정으로 인쇄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을 실현합니다.

綠線 자연을 두드리다

2025 Vol.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綠
線

자연을 두드리다



2025 Vol.4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뼀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담쟁이>





자연을 두드리다

2025 **Vol.4**



표지 그림은 담양 국립정원문화원의 수품재를 담고 있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 그리고 봄과 여름에 피어나는 꿀을 머금은 자생식물인 노각나무, 금낭화, 배초향, 섬기린초, 각시붓꽃, 앵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 달콤한 향에 이끌려 홍점알락나비가 날아들며 자연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지금 여기, 한수정

초록이 머무는 곳

정원문화를 체험하면서 배우는 국내 최초의 정원문화 전문기관
- 국립정원문화원 4

정원의 서랍

식물의 달콤한 유혹, 국립세종수목원 <스위트가든>
- 먹고, 마시고, 향을 맡고, 바라보며 즐기는 식물 전시 8

내가 한 수 위!

자연의 회복을 심는 사람들
-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 12

이색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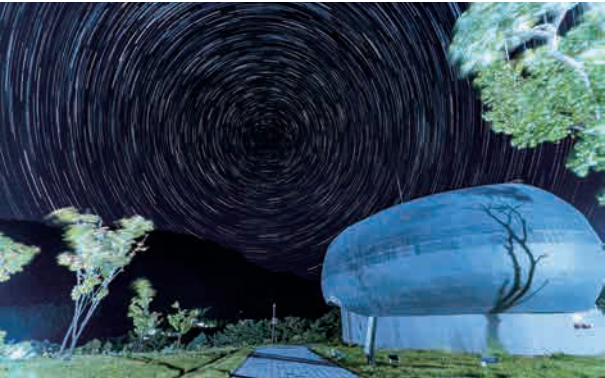
꽃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이야기
- 한수정 직원들의 꽃바구니 만들기 16

초록 동행

우리 손으로 여는 ‘국화축제’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약속을 향해
- 정가목원 정성윤, 이오영 대표 22

초록 ON AIR

수목원과 정원, 반려식물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한수정 팟캐스트 <수목원에서> 26



바로 곁에, 한수정

산책할까요?

바다와 숲이 서로를 닮아가는 곳
- 천리포수목원 30

식물처방전

한수정이 추천하는 MBTI 유형별 반려식물 32

언론 속 한수정

K-정원(K-Garden) 이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박찬수 국장(뉴스1) 34

해외 수목원 탐방

북극의 지하 정원, 미래를 심다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를 아시나요? 36



함께 웃는, 한수정

초록 한 스푼

독자 QUIZ 이벤트 40

#나의 초록 한 컷

나만의 정원을 소개해 주세요! 41

발행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발행인 심상택

편집인 대외협력실

발행일 2025년 8월

주소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전화 044-270-5005 홈페이지 www.koagi.or.kr

기획·디자인·인쇄 위고디자인 02-2039-7345

표지일러스트 설윤경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발행한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는 친환경 인쇄공정으로 제작합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을 실현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정원문화원(이하 문화원)을 시범 개장했다. 정식 개장을 앞두고 무료로 공개된 이 공간은 총 7ha(약 21,000평) 규모의 부지에 생활정원, 소재정원, 문화정원, K-가든 등 4개의 야외 정원과 15개의 주제정원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전시장을 넘어, 배우고 가꾸며 함께 만드는 '정원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아직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원이란 원래 완성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는 법.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비를 맞고, 햇볕을 품고, 나무 그늘 아래 이야기를 엮는 일상의 축적이야말로 진정한 정원문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문화원은 지금,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글 | 편집실

정원문화를 체험하면서 배우는 국내 최초의 정원문화 전문기관

- 국립정원문화원

지금 여기, 배우는



국립정원문화원의 속삭임
ASMR 듣기



정원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으로

국립정원문화원은 한국형 정원문화의 거점으로서 '배움과 실천'이라는 정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물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정원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공공정원 설계 교육, 정원해설사 교육, 실무형 정원전문관리사 과정 등의 교육으로 정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전 연령이 참여 가능한 대나무 반려식물 키트 만들기, 지구 마스크 만들기 같은 체험형 수업은 정원을 감각적으로 익히는 창의적 교육 모델로 주목받는다. 문화원은 교육을 통해 정원문화를 일상 속 배움으로 확장하며, 나아가 K-가든의 세계화와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비전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다.



청춘, 사랑, 대지, 지성... 향기로 말하는 정원의 언어
문화원의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은 갤러리온실이다. 이곳은 정원의 언어를 ‘향기’라는 감각적 매개로 풀어냈다. 문화원의 첫 기획 전시인 <향기의 서사>는 자연 속 향기들이 품은 삶의 기억과 감정을 조명하며, 관람객을 시공간을 초월한 감성의 정원으로 이끈다. 막 피어난 꽃처럼 생기 넘치는 ‘청춘의 향기’, 장미와 제주도 하굴이 어우러진 ‘사랑의 향기’, 흙 냄새를 그대로 살

린 ‘대지의 향기’는 자연이 들려주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오래된 도서관이나 책방의 냄새를 모티브로 한 ‘지성의 향기’는 시간의 축적을 담은 정원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정원을 구성하는 것은 꽃과 나무만이 아니다. 기억의 파편, 감정의 잔향, 시간을 머금은 공기까지— 갤러리온실은 이 모든 것을 담아내며 ‘정원은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K-가든과 수플재

문화원은 한국형 정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세계 각국에 K-가든을 보급하기 위한 K-가든 모델 정원과 운영 가이드를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조성된 K-가든지구는 K-숲정원, 약초정원, 솔향정원, 한옥정원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문화원의 대표 수종인 노각나무와 우리나라 대표 활엽수인 참나무, 층층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한국 정원의 생태적 감수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야외정원 한가운데에는 한옥쉼터 ‘수플재’가 있다. 수플재는 ‘나무와 정원이 어우러진 비움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도 체험, 인문학 강의, 전시 등이 진행되며 문화·학습·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수플재 주변에는 봄과 가을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메밀밭이 드리워져 있다. 한편,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지역성을 살려 조성된 대나무숲도 눈길을 끈다. 이 숲은 정원 교육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대나무 동산으로, 교육과 실습의 결과가 실제 공간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원의 서랍

Sweet Garden

식물 이야기 관수정

식물의 달콤한 유혹, 국립세종수목원 <스위트가든>

- 먹고, 마시고, 향을 맡고, 바라보며 즐기는 식물 전시

케이크 한 조각, 솜사탕 한 입, 향긋한 커피 한 모금.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디저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숨어 있다. 지금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에서는 이 달콤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는 기획전시 <스위트가든>이 펼쳐지고 있다. 스위트가든은 마치 디저트 카페에 들어선 듯한 다섯 개의 테마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저트 속 숨은 식물들의 정체 그리고 식물이 들려주는 달콤한 맛의 역사와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스위트가든은 어느새 당신의 기억 속 '가장 맛있는 정원'으로 남게 된다.

Zone 1.

스위트홈 Sweet Home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잃고 들어섰던 과자집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쿠키로 지은 지붕, 마시멜로로 장식한 벽, 시나몬으로 향을 입힌 창틀까지- 상상 속 집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시멜로 조형물 사이사이엔 접시꽃이 심겨 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마시멜로는 바로 이 꽃의 뿌리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과자집 주변으로 탐스럽게 수국이 피어 있다. 마치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피어난 하늘빛 꽃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달콤한 상상력이 샘솟는 이곳은,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동화 같은 정원이다.



Photo zone
디저트 회전목마

아치형 붉은 벽돌문을 지나면 보이는 핑크빛 회전목마. 스위트가든의 공식 포토존이자 가장 많은 셔터가 불리는 곳이다. 마음에 드는 디저트 의자에 앉아 달콤한 추억을 남겨보자!



Zone 2.

프루츠밸리

Fruits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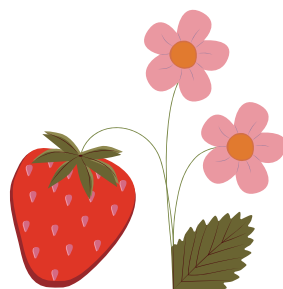
이름 그대로 과일이 주인공인 계곡이다. 귤, 레몬, 구아바, 블루베리, 바나나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고이는 과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애플망고 나무 앞에서는 “따서 먹어도 되나요?”라는 속삭임이 종종 들려오지만, 아쉽게도 이곳은 ‘눈으로만 맛보는’ 정원이다. 프루츠밸리의 작은 물길 위를 둥둥 떠다니는 과일 모형들은 마치 갓 짜낸 과일주스를 연상시킨다. 귤나무 아래 심어진 메리골드는 얼핏 보면 바닥에 떨어진 귤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디저트에 과일이 빠질 수 없는 이유는 그 오랜 역사에 있다. 고대에는 꿀과 함께 생과일을 즐겼고, 중세에는 말린 과일을 넣은 파이나 푸딩이 귀족의 식탁을 장식했다. 설탕이 보급된 이후에는 잼과 콩포트 같은 새로운 디저트 문화가 탄생했다. 과일 한 입에는 생각보다 깊은 시간이,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딸기 스마트가든

텃밭이 없어도, 흙을 만지지 않아도 딸기 농부가 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신선한 딸기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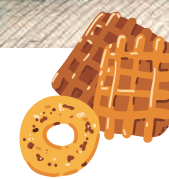
Zone 3.

브레드파크

Bread Park

빵 굽는 냄새가 날 것 같은 식물 정원. 사람 키만 한 케이크와 마카롱, 크로와상 조형물이 베이커리 쇼윈도처럼 관람객을 맞이한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포토존이다. “케이크에는 어떤 음료가 어울릴까?” 포토존 뒤편에는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다. 작고 둥근 커피 열매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조용히 알려준다. 허브티도 빼놓을 수 없다.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처럼 향긋한 허브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어 차분하고 따뜻한 향기로 공간을 감싼다.

이곳의 숨은 주인공은 ‘동양의 바닐라’라 불리는 판단(Pandan). 판단은 동남아에서 케이크, 젤리, 밥과 음료에 향을 입히는 데 쓰이며 특히 판단잼은 이국적인 맛으로 사랑받고 있다. 국내 수목원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식물로, 이곳 브레드파크에서만 특별히 만나볼 수 있다.



체험코너 아이스크림 향기 딸기

수목원 한가운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등장했다?! 입으로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향’으로 경험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의 재료로 활용된 식물의 향을 맡아 볼 수 있다.

Zone 4.

아이스초코숲

Ice Choco Forest



디저트에서 초콜릿을 빼놓을 수 있을까? 아이스초코숲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꿀처럼 달콤한 식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다. 숲길을 걷다 문득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한 향기, 어디선가 초콜릿 냄새가 난다면, 그 식물은 바로 카카오나무다. 국내 수목원 중 실제 카카오나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그래서일까, 이 앞에선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느려진다. 초콜릿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향, 바닐라도 이 숲에 함께한다. 바닐라 향의 원천인 바닐라난초 그리고 코코넛 향을 담은 막실라리아 등 다양한 이색 식물들이 어우러져 아이스초코숲의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저를 여기 한수정

내가 한 주 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가 가속화되는 시대,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부터 주요 생태축을 중심으로 자생식물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이어, 올해 5월에는 국립세종수목원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종자 확보부터 대량 생산까지, 생태복원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현장. 그 중심에 있는 식물소재사업실 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편집실, 사진 | 최병준

자연의 회복을 심는 사람들

-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

식물은 한곳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간다.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에, 오랜 시간 머문 그 땅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며 고유한 유전적 특성, 즉 ‘식물 개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나 훼손 등으로 서식지를 잃게 되면, 단순히 한 종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존재하던 생태적 다양성까지 함께 사라진다.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이하 센터)는 이런 식물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도서·연안 및 난대성 지역을 중심으로 복원대상 식물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토종 종자를 수집·증식해 다시 그 땅에 심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되살린다. 그렇게 식물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자연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남재익 실장은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번 센터의 설립은 자생식물 복원의 양적·기술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백두대간 센터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유리온실과 스마트 육묘장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생태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산불 이후, 우리 손으로 되살리는 땅

올해 초 대규모 산불이 전국 곳곳을 휩쓸었다. 타버린 산과 무너진 생태계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산림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만큼 센터의 발걸음도 더욱 분주해졌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훼손지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에서 종자와 묘목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일부 민간 기업이 ESG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탰고, 지역주민들 또한 생태 회복의 중요한 동반자로 복원 작업에 함께했다. 신재권 팀장은 ‘그 지역에서 자란 식물을 다시 그 지역에 심는 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한다.

“산불이 난 뒤, 그 지역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해 직접 키운 나무가 다시 자기 고향에 심긴다는 점에 주민들이 큰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산을 되살렸다’는 자부심 같은 거요.”

씨앗에 기술을 입혀, 더 빠르고 더 정교하게

자생식물의 복원과 확산에 속도를 더하는 핵심 기술, 바로 ‘종자 코팅을 활용한 자동파종 시스템’이다. 센터는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자생식물의 대량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종자 코팅은 말 그대로 씨앗을 특수성분으로 감싸는 기술이다. 발아를 유도하는 물질이나 미량 영양소를 함께 입혀, 씨앗의 생육 환경을 개선해 발아율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종자 코팅을 하면 자생종자의 초기 발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존 수작업에 비해 시간과 인건비가 50배 이상 절감됩니다. 복원뿐 아니라 수목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요처에 자생식물을 대량 공급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은 현장에서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남재익 실장 | 식물소재사업실

쫄레꽃은 가시가 있지만 매우 향기로운 꽃입니다. 저도 걸으려는 까칠해 보여도 속은 따뜻하거든요.



신재권 팀장 | 식물소재사업실 식물양묘팀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식물입니다. 저도 그런 존재이고 싶어요. 대체 불가한 센터의 유일무이한 사람으로요.



김영률 대리 | 식물소재사업실 식물양묘팀

진달래는 제게 특별한 꽃입니다. 드디어 진달래 같은 사람을 만나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요청으로 변산향유 1만 본을 공급했다. 변산향유는 변산반도에 자생하는 향기로운 보라색 꽃으로, 지역의 특산식물이자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종자 코팅을 통해 대량 생산된 변산향유는 부안군의 지역 축제와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올가을 국립세종수목원의 축제에서도 변산향유와 구절초가 전시되었는데, 이 또한 종자 코팅 기술을 적용해 대량 생산된 식물들이다. 특히 세종 지역 농가가 직

접 재배에 참여하고, 다시 수목원에 식재하는 구조는 지역 상생의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을 담당한 김영률 대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종자 코팅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아요. 각 지역의 특산 자생식물을 활용해 그 지역만의 생태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죠. 또 지자체와 연계해 축제나 도시공간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단순한 복원을 넘어, 지역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립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

개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센터는 매일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식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정작 해당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도 있었다.

“올해는 다양한 수종의 종자를 공급하고, 묘목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량 재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또



사라져가는 자생식물의 생육 환경에 맞춘 시설과 재배 메뉴얼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사업의 폭을 넓혀가는 단계죠.”

멸종위기종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복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외 일반 자생식물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공급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꽃이 피는 동백나무나 소나무처럼 관상 가치가 높은 특정 수종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남재익 실장은 그럴수록 센터가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센터는 단순히 ‘이 식물이 좋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다양한 자생식물이 관상적으로도 매력적일 뿐 아니라, 건조나 염분 등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관리가 덜 들고 생존율도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지역사회에서도 신뢰를 갖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남 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아직 자생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와 사람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센터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생식물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환경의 날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복원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센터는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틔우며,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무더운 7월의 화창한 오후. 네 명의 한수정 직원들이 꽃바구니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했다. 세종시 본원에서 온 권지혜 주임과 서정민 주임 그리고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온 김고운 대리와 김혜진 주임. 각기 다른 감성과 손끝으로 완성한 4인 4색 꽃바구니. 그들이 마주한 건 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이었다.

글 | 편집실, 사진 | 최병준

꽃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이야기

- 한수정 직원들의 꽃바구니 만들기 @세종시 '리브우드'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

테이블 위 각자의 자리에는 꽃가위와 플로럴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만의 꽃바구니 만들기'. 클래스는 플로리스트의 시연으로 시작됐다.

“꽃꽂이는 미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원의 꽃들이 저마다 다르게 피어나듯, 여러분의 꽃바구니도 각기 다른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수업의 첫 단계는 초록색 잎사귀로 베이스를 만드는 일이다. 본격적으로 꽃을 꽂기 전, 그린 소재들로 기본 구조를 잡아가는 시간. 참여자들의 손도 바빠진다. 절반 이상이 초록 베이스를 완성하고 꽃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서정민 주임은 옆 사람들의 바구니를 살펴보니 “다들 빠르시네요”라며 웃음을 짓는다.

“이걸로 성격 테스트 되는 거 아니에요?”



본원 기술사업화실
서정민 주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객서비스실
김고운 대리

본원 수목원사업실
권지혜 주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김혜진 주임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완성된 그린 베이스 위에 가장 먼저 꽃을 꽂은 풍성한 형태로 중심을 잡기에 좋은 다알리아. 이어서 줄리에타와 시크릿이란 이름의 장미들까지 하나둘 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했다. 다들 꽃을 고르고, 어디에 어떻게 꽂을지를 천천히 고민 하며 저마다의 속도로 수업에 집중해간다.

“꽃을 꽂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섬세한 사람은 잎 하나도 고르게 다듬고, 대담한 사람은 큰 꽃을 먼저 꽂고요. 손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보이죠.”

플로리스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구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제 큰 꽃들이 들어간 나머지 자리에 작은 꽃들을 꽂는다. 꽃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높이로

꽂는지에 따라 꽃바구니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럴 땐 짧은 아이를 가운데 먼저 넣고 나머지를 바깥쪽에 채워보세요. 꽃이 앞에서 나를 보고 있어야 해요. 바구니 손잡이를 기준으로 앞면엔 꽃을 70%, 뒷면엔 30%만 넣어주세요.” 손끝이 망설일 때마다 선생님은 조용히 다가와 조언을 건넸다.

“너무 어려워요... 정원과 식물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지고 꽃아본 건 처음이에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직접 꽃을 고르고, 줄기를 자르고, 물을 채워 넣는 순간은 마치 정지된 한 프레임처럼 고요했다. 꽃을 꽂는다는 단순한 동작 안에 집중, 감각, 취향, 감성이 커켜이 담긴다.

계절의 꽃, 사람의 결

신지매, 구름초, 맨드라미, 투베로사, 황화코스모스...

이 계절에만 피는 꽃들이다. 장미나 거베라처럼 하우스에서 사시사철 만날 수 있는 꽃과 달리, 이 꽃들은 계절이 지나면 다시 보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잔잔한 들꽃 같은 이 꽃들이 커다란 꽃 사이사이를 메꾸기 시작하자, 꽃바구니엔 계절의 싱그러움이 한층 더해진다. 하지만 큰 꽃보다도 오히려 작은 꽃을 꽂을 때 더 어려워졌다. 전체의 흐름과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고운 대리는 맨드라미 앞에서 유독 망설인다. 어디에 꽂아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다 결국 다시 꽃을 빼고 만다.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이 맨드라미, 꽃기 어렵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치렁치렁한 리듬 있는 소재가 좀 낯설 수 있어요. 길이를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면 훨씬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줄기를 살짝 다듬은 맨드라미가 바구니 가장자리로 들어가자, 전과 다른 리듬이 바구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 놓는다.



함께여서 더 특별했던 하루

모두가 조용히 손만 움직이고, 어느새 말 대신 가위 소리만 들리는 시간. 권지혜 주임이 그 적막을 깨고 웃으며 말했다.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음악도 너무 좋고요.”

형태가 잡혀갈수록 참여자들의 손놀림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여백을 메우고, 빠진 자리를 채우며 바구니는 점점 자신의 얼굴을 갖춘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각자의 꽃바구니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같은 수업, 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완성된 네 개의 바구니는 모두 달랐다. 대담

한 리듬이 있는 바구니, 가지런히 정리된 단정한 스타일, 여백의 미가 살아 있는 구성까지 — 각자의 손끝에서 각자의 개성이 피어났다.

“이 꽃, 누구에게 줄 건가요?”

“저한테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얼마 전 결혼했는데, 제 배우자에게 주려고요.”

꽃바구니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쯤,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 있었다. 손끝에 집중하며 나를 돌아보고, 함께 웃고 감탄하며 서로를 이해했던 시간. 바구니마다 담긴 꽃처럼 그날의 기억도 저마다 다르게, 하지만 모두 아름답게 마음속에 남았다.

MINI INTERVIEW



권지혜 주임

정말 재미있었고, 마음까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꽃 바구니는 제 자취방에 예쁘게 꾸며놓을 거예요. 나에게 주는 선물로요!



김혜진 주임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꽃으로 계속 꾸며야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상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이라서 오히려 더 특별했습니다.



김고운 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몰입할 수 있었던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봉화로 돌아가는 길에 꽃바구니까지 같이 들고 가니 캄스레 뿌듯합니다.



서정민 주임

화분이나 야외 식재만 하다가, 이렇게 섬세한 꽃꽂이는 처음이었어요. 꽃을 다루는 방식이 무척 신선했고, 사무실을 벗어나 조용히 꽃을 바라보며 집중한 시간이 뜻밖의 쉼이 되었어요.



QR코드로 연결하면
네 사람의 특별한 하루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전의면에 자리한 정가목원. 정성윤, 이오영 대표가 환하게 맞아준다. 하우스 안에 들어서자 삼목을 마친 국화들이 정갈하게 줄지어 자라고 있다. 모두 한수정 지역상생사업 농가육성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며, 멘티 농가들과 함께 심은 것들이다.

“언젠가 이 국화가 활짝 피어날 즈음, 멘티들과 함께 국화축제를 열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지역농가의 내일을 향한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다.

글 | 편집실, 사진 | 최병준

우리 손으로 여는 ‘국화축제’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약속을 향해

- 정가목원 정성윤, 이오영 대표

Q1. ‘정가목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한 20년 전쯤, 아내가 소나무를 좋아하게 되면서였어요. 아내가 묘목을 하나둘 키워다 보니 점점 규모가 커졌고, 저도 직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조경수 위주였지만, 요즘은 초화류 쪽으로도 방향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농장 이름은 원래 ‘창성농원’이었는데 같은 이름을 쓰는 업체가 있어서 고민 끝에 이름을 ‘정가농원’으로 바꿨죠. ‘따뜻할 정(情), 아름다울 가(佳)’ — 뜻 그대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키우는 농장이라는 뜻입니다.

Q2. 조정수 재배를 하시다가, 어떻게 화훼 쪽을 함께 하게 되셨나요?

코로나 이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조정수만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무는 몇 년씩 길러야 수익이 나고 시장도 워낙 변동이 크니까요. 그때 마침 세종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초화류 시범재배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그땐 초화

류 경험이 거의 없어서 많이 서툴렀어요. 그래도 시청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서 하나씩 배워 나갔죠. 초화류는 두세 달이면 꽃이 피고 수익이 도니까, 농가 입장에선 훨씬 안정적인 구조죠.





Q3. 한수정의 지역상생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21년에 우연히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정원장터부터 참여했고, 이후 상생위탁농가 2기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수정과 함께하게 됐죠. 지금은 멘토링 사업에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도 초화류 재배 중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수목원에 연락드려요.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묻고,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Q4. 최근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처음에 멘토 역할을 맡으라고 했을 땐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과연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멘티도 함께 배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국화 삽목 교육에서는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전문 농가에 가서 직접 삽수를 채취하고 삽목하고 약 처리까지 해보는 실습을 함께 했어요. 실습 기록 일지를 쓰면서 1차, 2차 삽목까지 마쳤고, 식재 간격 실험도 함께 해보면서 차근차근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앞으로 삽목한 국화가 뿌리를 내리

면 분갈이와 순따주기까지 단계별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또 수목원에서 종자 유통, 품종 출원, 생산·판매 구조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주셔서, 멘티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최근엔 농장 브랜딩 관련 강의도 예정돼 있어 모두 함께 들으러 갈 계획입니다.

Q5. 멘토링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같이 배우고 같이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함께 부딪치고, 궁금한 게 생기면 같이 질문하고, 또 같이 해결해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멘토링이 시작되고 나서는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안 자랐지?’, ‘왜 병이 났지?’ 이런 물음표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더 하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교육받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멘티들과 함께하다 보니 그 물음표를 놓치지 않게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Q6. 세록장터 플리마켓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해보셨는데,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처음 플리마켓에 나갔을 때는 솔직히 정말 많이 해맸어

요. 세종시는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 예쁘게 진열된 걸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농장 스타일 그대로 가져갔던 거죠. 장터를 여러 번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꾸며야 눈길을 끄는지. 저희가 저번에 ‘황매화’나 ‘깽깽이풀’ 같은 특색 있는 꽃을 개화 시점에 맞춰 꺼내 진열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스토리가 있는 상품 구성과 연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나만의 색깔’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소비자 취향을 쫓아가려 했지만, 결국은 내 취향과 개성을 담아 꾸민 진열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Q7. 한수정 지역상생사업에 제안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멘티들과 함께 다른 지역농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예전에 플리마켓에 나갔다가 봉화에서 오신 농가 분들을 잠깐 뵈 적이 있었는데, 지역 자생식물을 정성껏 키워 전시한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봉화지역 농가들과 저희 멘토링 그룹 간의 교류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이나 멘토 농가 간 팜 투어 같은 형식도 좋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의 기법이나 시



장 반응, 품종 정보 같은 걸 공유하면 농가 입장에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8. 앞으로 정가목원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요?

지금까지는 주로 기르는 데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직접 소비자와 만나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 첫걸음으로 이번에 멘티들과 함께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작게나마 ‘국화축제’를 열어보자고 했어요. 축제처럼 전시도 하고, 나눔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국화 삽목부터 같이 시작했으니, 끝도 같이 해보자는 마음이지요.

멘티들 대부분 수목원 지역상생사업이나 정원장터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이번 멘토링이 단순한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농가끼리 연결되고 협업이 시작되는 기점이 되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건 혼자선 못 하거든요. 다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농가 소득에도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지금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수목원과 정원, 반려식물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한수정 팟캐스트 <수목원에서>

여러분, 수목원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원과 식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친근하게 알리고 싶어, 한수정 팟캐스트 <수목원에서>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조금 서툴지 몰라도, 그래서 더 진짜같은 이야기가 가득하죠. 처음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정원문화원, 반려식물 산업전, TNFD 등 한수정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점차 식물과 사람, 정원과 삶을 잇는 이야기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장님(소나무지기)도 직접 출연해 정원과 자연에 대한 깊은 생각과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수목원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야기의 정원입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수목원 속 진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PODCAST

ON AIR

오늘의 특별 게스트!



소나무지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

공무원 9급에서 시작해 고위공무원까지

거침없이 올라온 전설의 공직자

지금은 K-정원의 꿈을 심는 한수정의 끝판왕으로 활약 중!

스스로를 소나무지기가 칭하며 산처럼 묵묵히, 나무처럼

우직하게 걸어온 소나무지기님의 인생 산행기, 함께 들어보시죠!



가드노 소나무지기님, 그럼 공직은 어디서 처음 시작하셨나요?

소나무지기 1991년, 대구 달서구 동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어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같은 기본적인 일부터 했죠. 이후 산림청 국가직 시험에 합격해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9급임에도 불구하고 6급 행정주사, 서무계장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가드노 9급인데 6급 역할이요?

소나무지기 맞아요. 이제 9급으로 막 들어간 사람이 6급 한다는 게 꿈도 못 꾸던 시절인데, 당시 계장 자리가 마침 공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한두 달 정도 서무계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했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어요.

가드노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1급까지 하시게 됐나요?

소나무지기 열심히 공부했고, 석사·박사 학위도 마쳤어요. 다른 분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매년 학술

지에 논문을 한 편씩 게재해왔어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 국립산림과학원장 자리에 도전했지만 2순위로 탈락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더 좋은 이 자리에 왔으니, 그 실패 덕분에 온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가드노 소나무지기님의 삶의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요?

소나무지기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이 제 삶에 깊이 새겨졌고, 제 좌우명은 지금도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가드노 공직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소나무지기 정말 많은 순간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일할 때예요. 체험 프로그램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했죠. 또 국유림·휴양림 예약 시스템 서버도 확충해서 시스템도 안정화했는데요. 그 결과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정말 보람찼던 순간이었어요.



- 가드노**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소나무지기** 제가 사실 어학이 약해요. 정말 학위 공부하면서 어학 때문에 힘들었어요.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심상택아, 영어 공부 좀 하자.”(웃음)
- 가드노** 지금까지 소나무지기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현재로 넘어가 볼까요? 소나무지기님의 아침 루틴이 궁금합니다.
- 소나무지기** 평일엔 5시 30분 기상, 맨발 걷기 산책, 샤워, 출근. 주말엔 조금 늦게 일어나서 3시간 반 정도 등산을 해요. 예전에는 오후에 주로 논문을 썼는데 요즘에는 자서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 가드노**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술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소나무지기** 예전에 체중이 99.8kg까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엔 주말에 더 길게 운동하고요.
- 가드노** 최근 성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 소나무지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산림청 산하기관 중 유일해요. 모두 우리 임직원들 덕분입니다.
- 가드노**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퇴임할 때마다 3행시, 4행시로 구성된 건배사들을 정리한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가장 마지막 공직생활 건배사는 무엇이었나요?
- 소나무지기** 정말 33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공직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건강을 챙기며 살자는 마음을 담아,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백”세까지 “두” 발로 “산”행하자
“나의 산! 당신의 산! 우리 모두의 산! 산! 산! 산!”
- 가드노**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 소나무지기** 처음엔 걱정됐지만 재미있었어요. 이런 방식도 참 좋네요.

* 본 내용은 팟캐스트 녹음 내용을 요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수목원에서>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팟캐스트에서 다뤄보면 어때요?”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소개하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문의처 : 044-251-0249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Spotify)



팟빵 바로 가기



스포티파이 바로가기

귀로 듣고,
눈으로 즐기는 정원 이야기

정원과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유튜브 <정원TV>에서는 정원의 생생한 모습과
전문가 인터뷰 등 다채로운 정원 관련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정원TV>
바로 가기

충남 태안반도의 끝자락, 서해를 따라난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왼편으로 바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서해 특유의 잔잔한 물결, 반짝이는 햇살, 어디선가 솔솔 불어오는 바람. 그렇게 바다를 따라가던 길 끝자락에서 천리포수목원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글 | 편집실

바다와 숲이 서로를 닮아가는 곳

- 천리포수목원



주소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천리포수목원
하절기 운영시간 : 09:00~18:00 (17시 입장마감)
일반요금 : 12,000원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민병갈(Carl Ferris Miller) 박사는 1962년부터 천리포의 이 척박한 모래땅에 하나하나 나무를 심기 시작해, 40여 년 세월 끝에 17,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국내 최초 민간 수목원으로 가졌다. 그의 숲은 한국 자생식물은 물론 세계 60여 개국의 도입종이 어우러진 생태의 보고가 되었고, 2000년에는 국제수목학회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공식 인증하기도 했다.

키위와 블루베리가 한국에서 처음 뿌리내린 곳

주제원의 굽이진 길을 걷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키위를 도입한 천리포수목원"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띈다. 민병갈 박사는 키위와 블루베리를 한국 땅에 처음으로 들여왔다. 그는 가끔 수목원에서 자란 블루베리로 직접 잼을 만들어 먹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한다. 국내 과수농가의 주요 소득으로 자리잡은 키위와 블루베리의 시작이 바로 천리포수목원이었던 셈이다.

민병갈의 나무- 완도호랑가시와 목련 '라즈베리 편'

천리포수목원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특별한 나무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자생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와 외국산 변종 목련 '라즈베리 편'으로, 둘 다 민병갈 박사의 이름이 학명에 함께 새겨진 이곳을 대표하는 나무들이다. 민병갈 박사가 1978년 완도의 자생식물을 탐사하던 중 세계적인 희귀종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처음 발견했고, 이후 세계 식물학계에 공식 등록되었다. 2025년에는 완도군이 이 나무를 군목으로 지정하며 지역의 상징수로 삼았다. 또 하나, 수목원 곳곳을 물들이는 목련 '라즈베리 편'은 민 박사가 직접 파종 실험을 통해 선발한 품종으로, 세계 목련도감에 공식 등재되었다.

바다를 만나는 길, 솔바람길

수목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나면, 눈앞에 천리포 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숲의 고요함과 또 다른 탁 트인 풍경이 마음을 채운다. 해변 앞 작은 섬은 마을 사람들이 '닭섬'이라 부르지만, 민병갈 박사는 이곳에 살던 바다직박구리 '낭새'를 떠올려 '낭새섬'이라 이름 붙였다. 물이 빠진 바닷길 위로 섬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 해변 데크길 옆으로는 1970년대 초 민 박사가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심은 곰솔 숲이 길게 이어져 있다. 지금은 해안을 따라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조용한 해안숲길이 되어 탐방객을 맞이한다.

한수정 우수교육기관 공모전에 사립 부문 최우수상 수상

천리포수목원은 2009년에 국내 최초로 산림청 인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국내 정원·수목원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외에도 유아 숲교육부터 장애인 숲치유 프로그램까지, 연령과 대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며, 누구나 자연 속에서 삶을 돌아보고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길을 넓혀왔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한 우수 교육기관 공모전에서 사립 부문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수정이 추천하는 MBTI 유형별 반려식물



분석형

INTJ - 정원 설계자 “계획대로 되는 식물, 딱 좋아.”

계획적이고 독립적인 당신에겐 복잡한 생리 구조를 지녔지만 관리가 쉬운 식물이 잘 어울려요! 혼자서도 묵묵히 자기 리듬대로 자라는 식물과 참덕궁합!



산호수

INTP - 식물 탐구자 “이 식물... 구조가 아주 흥미로운데?”

새로운 걸 좋아하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당신에겐 관찰할 거리와 연구 소재가 풍부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식물이 좋겠죠?



나도풍란

ENTJ - 정원 비전가 “이왕 키울 거면, 존재감 확실한 걸로.”

당신처럼 강렬한 존재감과 명확한 목적성을 지닌 성향에는 형태와 색감 모두 강한 임팩트를 주는 식물이 어울립니다.



동백나무

ENTP - 녹색 혁신가 “평범한 건 재미없어. 내 식물도 반전 있어야지!”

변화를 즐기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당신에게는 독특한 생존 전략이나 변화하는 성장 패턴이 있는 식물이 딱입니다!



세뿔석위

외교형

INFJ - 식물 철학자 “복잡한 세상, 나는 향기로 대화합니다.”

조용하고 사색적인 당신에겐 말 없이 공간을 채우는 은은한 향기 식물이 어울려요.



백서향

INFP - 초록 이야기꾼 “내 마음 속엔 늘 한 편의 시가 자라요.”

섬세하고 상상력 넘치는 당신에게는 감성을 자극하는 독특한 형태의 식물이 찰떡!



바위솔

ENFJ - 초록 엔토 “사람 챙기랴, 식물 키우랴 바빠다 바빠!”

리더십과 배려를 겸비한 당신에겐 키우는 맛도 나누는 맛도 좋은 실용 만능 식물이 어울려요.



만병초

ENFP - 정원 탐험가 “내가 키우는 식물도 나처럼 튀어야지!”

창의력과 장난기 풀충전인 당신이라면 키울수록 반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을 좋아할 거예요.



숫돌담고사리

“

당신의 성향에 꼭 맞는 식물을
찾아보세요!

”



관리자형

ISTJ - 정원의 관리자 “나만큼 질서 있는 식물, 어디 없을까?”

계획은 빈틈없이! 물 주는 날도 정확하게! 책임감 갑(甲)인 당신에겐 성장 패턴도 규칙적이고 실용적인 식물이 딱이죠.



파초일엽

ISFJ - 치유의 정원사 “조용히 마음을 안아주는 타입이면 좋겠어.”

배려심 많고 따뜻한 당신에겐 공기정화도 잘하고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식물이 잘 어울려요.



홍지네고사리

ESTJ - 식물 경영가 “난 식물도 깔끔하고 효율적인 게 좋아.”

조직적이고 현실적인 당신은 딱 봐도 견고하고 균형잡힌 형태의 식물에 끌릴걸요?



후박나무

ESFJ - 정원의 환대자 “우리 집 오는 사람마다 이 식물 보고 감탄했으면!”

사교적이고 다정한 당신에겐 화려한 꽃과 향으로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식물을 추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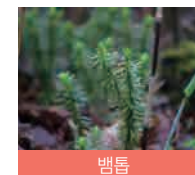


금새우난초

탐험가형

ISTP - 식물 기술자 “관리? 최소한이면 충분해요.”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당신에겐 터프하면서도 묵묵히 잘 자라는 생명력 강한 식물이 잘 어울려요.



뱀틀

ISFP - 정원의 예술가 “예쁜 건 좋아하지만, 튀는 건 싫어.”

감각적이고 조용한 당신에겐 유려한 곡선과 은은한 색감의 식물이 잘 맞아요.



마삭줄

ESTP - 액션 플랜터 “빨리 크고, 확 바뀌고, 딱 눈에 띄어야지!”

에너지 넘치고 도전 정신 강한 당신, 성장 속도 빠르고 공간 분위기 확 바꾸는 식물이 제격이죠.



밀사초

ESFP - 정원의 스타 “식물도 존재감 있어야지. 이왕이면 예쁘고 눈에 띄게!”

사교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당신에겐 화려한 색감과 시선강탈 비주얼을 가진 식물이 잘 어울려요.



완도호랑가시나무

K-정원(K-Garden) 이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글 | 박찬수 국장(뉴스1)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인 한류(韓流, Korean Wave)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K-전통문화 중 K-정원(K-Garden)도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중 하나이다.

K-정원은 한국의 전통 정원 문화를 뜻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과 철학을 담은 한국식 정원 양식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흐름이다. 한류의 새로운 영역으로, 최근 관광·문화·조경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K-정원은 인공적으로 꾸미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구성하는 자연과의 조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담백하고 단정한 아름다움 중시하는 소박함과 절제 등을 들 수 있다.

K-정원의 세계 진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야말로 K-정원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수정은 지난해 말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한국전통정원

‘애양단’을 조성했다. 영국 첼시플라워쇼 금상 수상자인 황지해 정원작가를 비롯해 전남도가 함께 조성한 애양단은 전남 담양군에 있는 소재원의 담장을 모티브로 조성됐다. 뉴욕 한국문화원 뒤쪽 공간에 166㎡ 규모로 조성된 애양단에는 우리 자생식물인 각나무, 생열귀나무, 쉬땅나무, 백화등 등을 활용해 K-가든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애양단은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한수정은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에서 한국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첩첩산수’ 정원을 조성해 K-가든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첩첩산수’ 정원은 조성 당시 박람회 측으로부터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생식물 수출로 이어져

한수정의 이 같은 노력은 우리 자생식물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한수정은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동 카타르, 쿠웨이트에 이어 북미지역에도 K-가든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치유정원

이밖에 한수정은 민간정원에 대해서도 정원 식재 및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정원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수정은 정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정원 활성화 TF’도 운영하고 있다.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정원 활성화 TF’에서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하는가 하면 민간정원 등록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말 기준 민간정원은 44개소에서 지난해에는 157개소로 확대됐다.

반려식물 문화조성사업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수정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반려식물 문화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프로그램은 도서 지역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진단부터 치료까지 수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수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치유정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수정은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 치유정원’ 1호점을 서울 금천소방서에 조성했다. 한수정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디지털 치유 팝업 가든·기획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K-정원 성공을 위한 과제들

K-정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원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한수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정원의 성공 조건으로 우선 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다. 한국 전통 정원의 철학(자연과의 조화, 소박한 아름다움 등)을 유지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정원에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 문학 등 스토리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강화와 K-정원이라는 명칭처럼 일관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홍보하는 브랜드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정원 안에는 한식, 한복, 한옥, 전통 음악 등과 연계한 복합 문화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정원 해설, 다도 체험, 전통놀이, 식물 치유 프로그램 등 체험 요소 강화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봄꽃축제,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 계절별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한다면 K-정원 성공에 더욱 한 발짝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 육성은 당연한 선결 과제이다. K-팝, K-푸드 등과 연계한 K-가든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해외 진출 전략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외 박람회, 정원 콘테스트 참가 및 해외 모델 정원 조성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기후·문화에 맞춘 한국식 정원 설계 등 현지화 전략도 필요하다.



뉴욕 한국문화원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 ‘애양단’



2023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에 조성한 ‘첩첩산수’ 정원

노르웨이의 북극 끝자락, 스발바르 제도의 얼어붙은 대지 아래, 하나의 정원이 ‘잠들어’ 있다.
이곳엔 꽃도 없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여긴, 인류가 가장 간절하게 지키고자 한 정원이다.
바로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Svalbard Global Seed Vault), 일명 ‘지구의 마지막 씨앗 창고’다.
글 | 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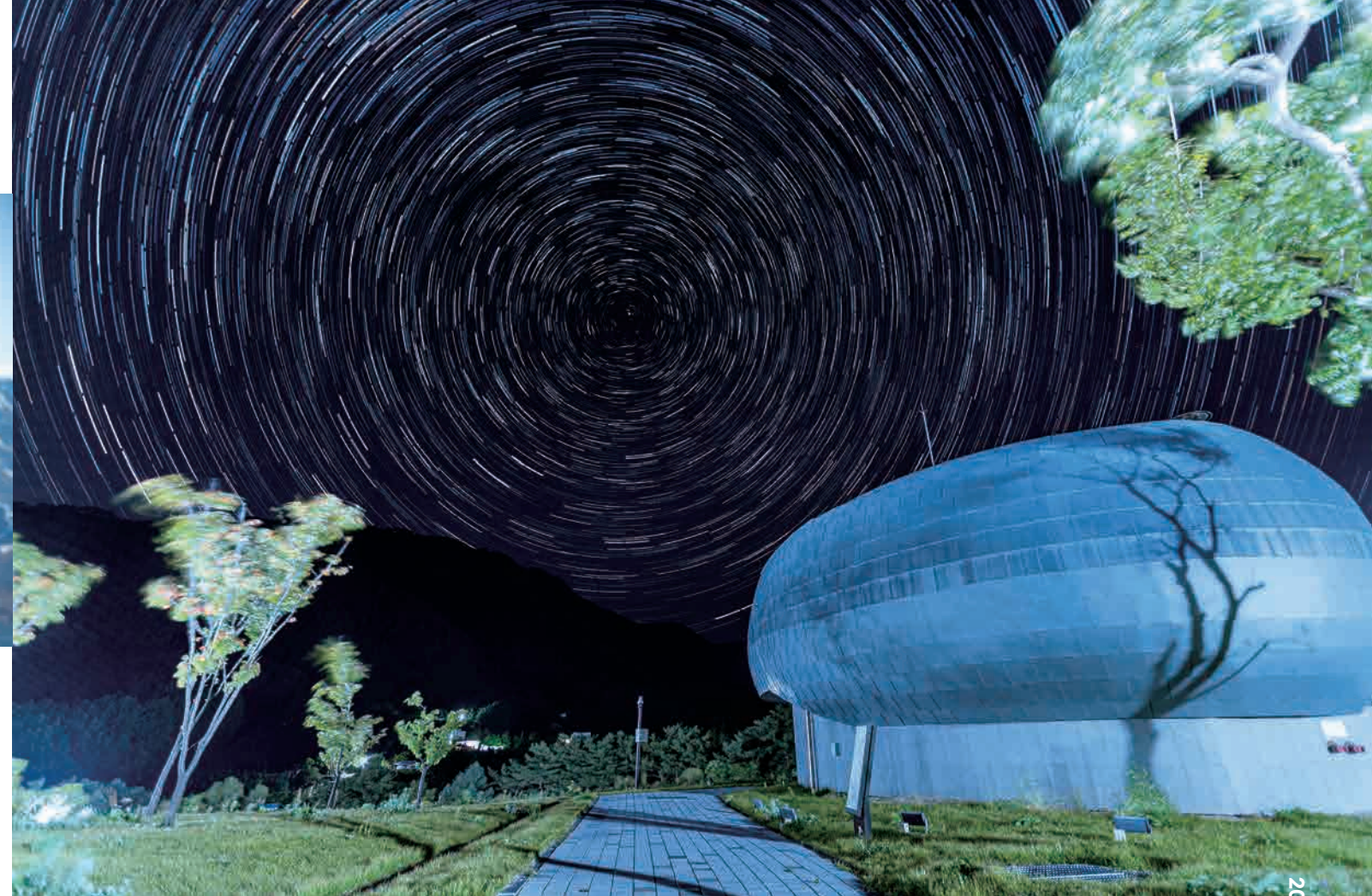
북극의 지하 정원, 미래를 심다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를 아시나요?

전 세계적에서 단 두 곳뿐인 시드볼트

시드볼트는 시드(Seed, 종자)와 볼트(Vault, 금고)가 합쳐진 단어로, 종자를 보관하는 금고라는 의미다. 종자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종자은행(Seed Bank)과 비슷하지만 지구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종자은행은 연구나 증식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지만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나 전쟁, 핵폭발 등 예상치 못한 지구 차원의 대재앙에 대비하여 야생식물의 멸종을 막는 초인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보관 기간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자은행은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갖고 있지만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이다. 한 곳은 우리나라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aekdudaegan Global Seed Vault, BGSV)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북유럽유전자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 북쪽 섬 영구동토층에 위치한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Svalbard Global Seed Vault, SGSV)이다. 이곳에는 전 세계 약 110만 종의 작물 종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작물 종자도 보관되어 있다.

씨앗, 생명의 백업 파일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는 2008년에 문을 열었다. 시드볼트의 종자 반출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뤄진다.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이나 특정 야생 식물 종이 자연에서 완전히 사라진 경우 혹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시드볼트에 한 번 입고된 종자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드볼트는 종종 ‘지구 최후의 날을 위한 금고’라 불린다. 실제로 스발바르 시드볼트에서 전쟁으로 인해 기탁국이 씨앗을 되찾아간 사례는 단 두 번뿐이다. 2011년 시리아에 본부를 둔 국제건설지역농업연구센터(ICARDA)는 정세 불안을 감지하고 미리 종자의 중복 표본들을 스발바르로 보냈다. 이후 시리아에 전쟁이 터졌고, 2015년 ICARDA는 스발바르에 도움을 요청해 그동안 맡겨둔 종자 일부를 돌려받아 레바논과 모로코에 유전자은행을 다시 만들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지 유전자원은행 일부가 파괴되면서 손실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씨앗 반출이 있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적인 정원

시드볼트가 북극 한가운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세워진 이유는 명확하다. 영구동토층이라는 자연 냉동 시스템, 정치적 안정성과 지질학적 안전성, 외부 위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 즉,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의 힘을 이용해 오래도록 ‘보존’ 가능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씨앗을 심지 않고 지킨다는 것. 꽃을 피우지 않지만, 언젠가의 피어남을 위해 묻는다는 것.”

오늘날, 식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멸종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서식지 파괴, 전쟁, 산업화는 수많은 식물 종이 씨앗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씨앗을 지키는 일은 곧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 되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 그 안의 노아의 방주

2019년 6월,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노르웨이 농식품부와 ‘종자 기탁 협약’을 맺었다. 국내 작물 종자를 ‘인류 최후의 날 저장고’로 불리는 스발바르 시드볼트에 보존하기 위한 협력이다. 이후 2020년 2월,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희귀·약용 식물 10종의 종자가 노르웨이 북극 지하 저장소로 옮겨졌다. 그중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 기준 희귀식물인 두메부추, 한방약재로 사용되는 오갈피나무, 향토 허브로 알려진 배초향(방아)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분포하는 야생식물 중 수의 30% 저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월 30일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날’로 지정했다. ‘2050’의 5와 ‘30%’의 30을 조합한 날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을 상징한다. 매년 이날에는 씨앗과 생명 보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백두대간 종자가 스발바르 시드볼트에 입고되는 모습



언젠가 피어나야 할 내일을 위해,
백두대간 깊은 땅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정원이 숨 쉬고 있다.



독자 QUIZ 이벤트!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독자 의견과 함께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 나무는 차나무과의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로
충청북도 소백산 이남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세계적으로 7개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종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갈색의 나무껍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벗겨지면서 황갈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비단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힌트 한 스푼

국립정원문화원의 대표 수종이기도 합니다!
<초록이 머무는 곳>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독자 의견과 함께 정답을 맞추신 10명을 선정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당첨 선물 : 싱글팩 허브티 상품권(11,000원 상당)

당첨 인원 : 10명

선물 발송 : 2025년 10월 6일(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

※ 미 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QR코드 스캔 후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나만의 정원을 소개해 주세요!

베란다 구석에 핀 계절 꽃 한 송이,
책상 위 작은 꽃병, 창틀에 놓인 허브 화분, 주방 한켠의
유리컵 속 수경식물까지~
어쩌면 정원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초록이 머무는 그곳이 곧 정원입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나만의 정원'을 자랑해 주세요.
직접 찍은 정원 사진 한 컷과 함께
나만의 정원 꾸미기 꿀팁을 보내주시면, 5명을 선정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정원 사진 1장 이상을
보내주세요
(핸드폰 사진도 OK)



함께 보내주실
내용

- 식물 소개 (예. 로즈마리 키운 지 2년 됐어요!)
- 나만의 정원 꾸미기 팁 (예. 계절 꽃 한 송이만 사서 유리병에 꽂아 두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 정원과 관련된 짧은 사연도 좋아요

보내는 곳
(아래 방법 중 선택)

-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에 업로드



- 이메일로 보내기
goodline456@naver.com

*보내주신 사진과 글은 다음 호 사보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식 SNS 채널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당첨 선물 : 프리미엄 티 꽃송이차 5종 세트(26,000원 상당)

당첨 인원 : 5명

선물 발송 : 2025년 10월 6일(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

※ 미 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